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⑬ 반야용선



▶한줄 요약
불자들은 법당이 곧 '반야용선'이라는 의미에 익숙하다. 사바세계가 괴로움의 바다라면, 부처님 가르침으로 충만한 법당은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배에 해당한다. 부처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간다면 누구든 피안에 도달할 수 있으니 서방정토는 사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고해 건너 피안 향하는 '구원의 배'

고해를 건너 피안의 세계로

옛사람들은 무덤 속에 배를 그리거나 새겼다. 죽은 이의 영혼을 배에 실어 사후세계로 무사히 데려가기를 바라는 주술적 염원이다. 동서고금 없이 배는 미지의 이상세계를 향한 이미지와 짝을 이루어왔다. 수평선 너머 망망대해로 떠나는 배가 인간이 꿈꾸는 피안의 세계로 데려다줄 이동 수단이라 여긴 것이다.

마을에서는 배가 나아가는 모습의 행주형(行舟形) 지세를 최고의 입지로 꼽는다. 이는 만선(滿船)이 드나드는 풍요로운 부촌임을 뜻하고, 홍수에도 마을을 안전하게 지키는 '구원의 배'가 되어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주형 마을에는 어김없이 홍수설화가 전승된다. 그런데 풍요와 구원을 보장받으려면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돛대를 잘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솟대를 세워 돛대로 삼고, 꼭대기에 오리를 앉혔다. 오리는 물갈퀴와 다리와 날개가 있어 물 · 땅 · 하늘의 삼계에 자유자재하다고 본 것이다.

불교에서도 현실과 이상세계를 연결하는 배의 상징성을 공유하고 있다. 번뇌에 찬 이승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정토로 건너가려면 배가 필요하다. 그 세계는 반야의 지혜에 의지해 건널 수 있으며, 불법을 수호하는 용이 이끈다고 여겨 '반야용선(般若龍船)'이라는 관념이 생겨난 것이다.

고려 말 〈미륵하생경변상도〉에 그려진 우리나라의 초기 반야용선 도상을 보면, 왕생자(往生者)만 승선한 모습이었다. 그 뒤 이들을 극락으로 이끄는 아미타불이 등장하고, 점차 관음보살 · 지장보살이 함께하는 아미타삼존, 정토의 인도자 인로왕보살이 자리하게 된다. 따라서 반야용선은 인로왕보살이 선두에서 이끌고 지장보살이 선미를 지키는 가운데, 아미타삼존이 중생과 함께하며 거센 파도를 헤쳐 가는 모습으로 즐겨 표현된다.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오니
반야의 배 빨리 타게 하소서,
고통의 바다 빨리 건너게 하소서.

불자들이 관세음보살에게 올리는 〈천수경〉 '십원문(十願文)'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루바삐 탐진치에서 벗어나 참된 지혜의 세계로 건너가길 바라는 간절한 기원이다.

또한 불자들은 '법당이 곧 반야용선'이라는 의미에 익숙하다. 사바세계가 괴로움의 바다[苦海]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충만한 법당은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배에 해당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간다면 누구든 피안에 도달할 수 있으니, 서방정토는 사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사찰건축에도 법당이 곧 반야용선이라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법당 전면의 기둥머리에 조각한 커다란 용두(龍頭)는 불법을 수호하는 것이자, 법당이 반야용선임을 나타내는 뜻이다. 구례 천은사 법당처럼 뒤쪽에도 용미(龍尾)를 조성해 이를 강조하는가 하면, 법당 외벽에 용선도를 그림으로써 법당이 거대한 반야용선임을 더욱 실감케 한다.



조선시대에 조성된 신륵사 극락적 외벽의 반야용선도. ©성보문화재연구원

반야용선에 매단 나룻배

그림으로 표현한 반야용선도는, 본에 따라 그리는 여느 불화와 달리 다채로운 모습을 지녔다.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민속적 성격이 짙은 그림이기에 화사(畫師)의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도상의 기본 의미와 구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도상을 만날 수 있어 즐거움을 준다.

그 가운데 제천 신륵사 외벽의 반야용선도는 여러모로 인상적이다. 서방정토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의 여정과 함께, 극적 요소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그림에서는 파도가 더욱 거세지며 네 발을 드러낸 채 험한 바닷길을 내달리는 용의 모습이 강조되어 있다. 배의 앞뒤와 중앙의 인로왕보살 · 관음보살 · 대세지보살은 지금까지 합장했던 두 손을 풀고, 열심히 노를 젓는 실천적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의 백미는 용선과 연결된 작은 나룻배이다. 용선은 이미 가득 찼기에, 타지 못한 이들을 빽빽이 태운 작은 배를 밧줄로 매단 채 함께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림 앞에 선 이들은 중생을 남김없이 구하려는 긴박감과 함께, 정토를 향한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느꼈을 법하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반전이 숨어 있다. 용선에 탄 이들 대부분이 스님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반야용선이 단순한 '구원의 배'가 아니기 때문이다. 용선을 탄 대중이 가는 곳은 깨달음의 세계이기에, 수행 없이 극락왕생만 바라는 중생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림으로 새겨야 할 듯하다.



무속 넋굿에서 반야용선을 태우는 모습.

무덤 속 배 그리고 새긴 옛 사람들
사후세계 무사히 가는 염원 담아
천도재서 나타난 반야용선 의식은
서방정토 도달했음 뚜렷히 보여줘

이처럼 반야용선에 줄을 매달아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구제의 모티브는 설화적 연계 고리를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민간에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악착보살' 설화가 생겨났다. 그 내용을 보면, 어느 마을에 반야용선이 도착했는데 한 보살이 그곳에 다다라보니 용선이 막 떠나가고 있었다. 이에 안타까운 그녀를 구하기 위해 배에서 밧줄을 던져주어 그 줄을 붙잡고 악착같이 극락정토로 향했다는 이야기이다.

이름만큼 간절한 사연을 지닌 설화 속의 악착보살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운문사 비로전 천장에는 나무로 만든 용선이 있는데, 배에서 내려온 밧줄에 한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린 모습을 조각해 두었다. 그녀가 바로 악착보살로, 줄을 놓치면 망망대해에 빠지게 되니 한순간도 정신을 놓지 않는 지극한 구도심을 일깨우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 봉천동 길상사 법당에도 악착보살이 있다. 똑같이 천장의 반야용선에서 내려온 줄을 잡고 매달렸는데, 긴박한 당시 상황을 말해주듯 한쪽 발에만 신발을 신은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 이처럼 '반야용선과 악착보살'이 세트화되어 간절한 수행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극락왕생을 비는 불자들의 염불에 반야용선이 즐겨 등장하듯이, 천도재(薦度齋)에서는 입체적으로 구상화한 반야용선을 만날 수 있다. 대나무 · 한지 · 지화 등으로 간단한 반야용선을 만들어 봉송 때 태우기도 하고, 영단의 장엄물로 크고 작은 반야용선을 만들어두기도 한다. 모두 망자가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왕생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구조물이다.

서울 흥천사 법당에는 영단 벽에 극락구품도(極樂九品圖)를 걸고, 그 앞에 등으로 커다란 반야용선을 조성하여 불을 밝혀두었다. 용선의 선실에는 연화화생(蓮華化生) 그림을 장식하고 앞쪽에 위패를 봉안함으로써 영가의 환희로운 왕생을 가시화하였다. 부산 삼광사 지장전에는 법당 천장에 레일을 설치해두고, 봉송 때 반야용선을 동에서 서로 이동시켜 서방정토에 도달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반야용선을 탄 사람들

밀양 광제사에서 반야용선을 타고 즐거워하는 신도들을 만난 적이 있다. 이들은 생전예수재에 동참한 신도들로, 마지막 회향 때 수레를 개조하여 만든 커다란 반야용선에 탄 채 앞뒤로 염불하는 스님들과 함께 흥겹게 탑을 돌았다. 사찰에서는 이를 '용선작법(龍船作法)'이라 부른다. 큼지막한 용머리로 장식한 배의 앞쪽은 인로왕보살이 이끌고 뒤쪽은 지장보살이 따르며 네댓 명씩 용선을 타고 돌면, 나머지 신도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이처럼 망자를 위한 천도재만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예수재에서도 사찰마다 반야용선을 조성하여 법당 안팎에 장엄한다. 예수재 또한 살아있을 때 미리 닦아 극락왕생을 준비하는 의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제사처럼 동참재자를 반야용선에 직접 태우는 일련의 예수재가 전승되고 있어 흥미롭다. 망자를 위한 천도재에서 반야용선에 고인의 위패를 실으니, 산 자를 위한 예수재에서는 동참재자가 직접 타는 것이 합당하다.

1980년대 거제도 어느 사찰의 예수재를 기록한 김희균의 글에서도 같은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당시 노인들은 "죽을 때 즐겁게 죽어야 저승길이 순탄하며 이생에 다시 온다"며 덩실덩실 춤판이 벌어졌고, '저승에 다녀오는 형식'으로 가마에 한 사람씩 타고 마당을 한 바퀴씩 돌았다고 한다. 이때의 가마는 형태와 무관하게 반야용선을 뜻하니, 마당을 돌아 저승에 다녀옴으로써 극락으로 가는 길을 미리 닦은 셈이다.

그런데 광제사에서는 설판재자 · 중판재자의 경우 화려하게 장엄한 부처님과 왕의 전용 가마연(輦)을 타도록 했으나, 반야용선을 더 선호하여 모두 반야용선으로 통일했다고 한다. 한국 불자들에게 반야용선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반야용선을 타는 의식은 경남에 전승되는 산오구굿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산 오구굿은 망자를 위한 오구굿을 살아있을 때 치르는 것으로, 예수재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굿을 할 때 종이로 만든 반야용선에 굿의 주인공인 기주(祈主)의 위패를 실어 길을 닦아주고, 마지막에는 기주를 가마에 태운 채 마당을 돌며 다함께 춤을 춘다. 이를 '극락춤'이라 하여 무사히 극락왕생이 이루어졌음을 축하하는 것이다. 이때의 가마 또한 관념적 반야용선을 상징하는 가운데 사후를 축복하는 환희로운 의식이다.

대표적인 무속신화 '바리공주'는 불교적 섭리가 기반을 이룬다. 바리데기는 자신을 버린 망부를 살리고자 서천구약(西天救藥)의 험난한 행로를 떠나지만, 가는 길에 만나는 지옥의 문을 하나씩 열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지극한 선업(善業)을 쌓으며 궁극의 목적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 망부를 살릴 재생의 묘약이 있는 세계는 서방정토를 상징하는 서천(西天)이며, 저승으로 가는 망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간다.

자신의 급박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지옥 중생을 외면하지 않았던 바리데기의 보살심이, 서방정토에 도달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불교의 영향을 받은 '바리공주' 신화는 '고해를 건너는 구원의 배'의 참된 의미와 함께 서방정토를 향한 길이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를 말해준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주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우슬, 황칠, 두충, 가시오가피, 울금, 참당귀, 쇠비름, 독활, 마가목열매, 개다래열매,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